

# 전주 대한방직 터 개발 '빨간불'

### 전주시, 자광 측 요청 '주거→사업용지 변경 계획안' 반려 "국도계획 법령 부합되지 않고 지구단위 수립 지침 어긋나"

전북 전주의 노른자위인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전주시가 주거부지를 사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자광 측의 요청을 반려했다.

시는,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도계획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유지 사전협의 회신문서 내용에 대해선 "재산관리청의 사전협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업용지인 대한방직 부지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돼 있다. 자광 측은 이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사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현상에서는 자광의 요구대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자광 측이 주변 인구 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교통 등에 대한 별도 용역을 해온다면 검토와 논의를 해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지난해 4월부터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다"며, "현재까지 대부분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됐고, 이달 중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중 전북도에 승인 신청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김종업 생태도시국장의 (주)자광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브리핑이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종업 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자광은 지난달 18일 대한방직 원(총액 1980억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부지(21만6464㎡)에 대한 잔금 1782억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송효철 기자

# 전주형 주거지재생 모델 찾아서

### 시, '사람의도시 주거지재생 1차 포럼' 개최 정부 주도사업 한계 극복 대안사업 모델 마련

전주시가 재개발 해체구역 등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살고 싶은 동네로 재생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주형 저층주거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는 주민주도형 주거지재생사업과 전주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마을주택 조성사업, 빈집 재생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구도심 저층주거지에 대해 자체적인 재생 정책과 사업 모델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동네로 재생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구도심 저층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곳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시 쇠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주지역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최근 3년간 다가, 덕진구청 인근, 진북, 인후 등 9개 구역이 해제됐으며, 나머지 몇몇곳의 경우도 사업성과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추가 해제될 가능성 높아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주거환경 관리와 기초인프라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전문가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관리 정책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의

견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건축, 주거복지, 도시재생, 사회경제적 주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전주시 주거지재생 필요성을 주제로 '사람의도시 주거지재생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사람의도시 주거지재생 포럼을 열고 중앙정부의 저층주거지 정책에 대해 배우고, 타지역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주 구도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 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전주형 저층주거지 관리 종합계획(안) 수립과 관련 다올미당 운영 등을 통해 주거지재생 및 주거환경관리 프로젝트를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형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지재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 매년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은 1~2개소로 제한적"이라며 "전주시민의 자체적인 주거지재생 정책 및 대안 사업 모델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구도심 도시쇠퇴와 재개발 해체지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북가야 선포식 1주년... 전북자존의 시대 길 열어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7월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사업이 국정과정으로 채택된 이후 전북가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북가야 선포식'을 통해 역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7년 전북가야 선포식과 함께 1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오는 2019년에는 192억원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등 전북가야발굴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가야 연구, 복원을 위한 첫 시도로 지난 7년부터 도,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정책에 효율적 대응과 전략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가야 연구, 복원 TF팀(22명) 및 전북가야 전문가협의회(18명)를 구성했다.

또한,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9회)를 통해 '전북가야 리는 고유 명칭

### 도, 역사 규명 박차 내년 192억 확보 추진 유적지 발굴 토대 마련

사용, 선포식 개최, 전북가야 투트 개발, 국가사적 우선지정 대상 선정, 출토유물 문화재 지정, 제철과 봉수 왕국 전북가야의 특성 규명을 위한 용역 필요성 등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전북가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자들과 함께 유적 및 유물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북가야사 조사 및 연구가 현재까지 남원, 장수 등을 중심으로 82년부터 50억원을 들여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진

안, 임실 등 동부권 지역은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서 전라북도 전체지역에 대한 현황과 역사고증, 가야유적의 향후정비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자료 마련을 위해 '전북가야사 및 유적정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발주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전북가야 관련 유적의 목록화, 가야 관련 조사와 연구(문헌)자료의 집성, 전북가야의 독창적인 문화 유적(제철, 봉수유적)에 대한 종합검토, 가야문화유산의 조사 및 정비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향후 활용방안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전북가야 유적 국가사적 지정 및 출토유물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지난 3월에 남원 유곡리와 두리리 고분군을 가야 유적 중 호남 최초로 국가사적(542호)으로 지정받았다. /송효철 기자

또한, 현재 가야는 경상가야 위주로 국민에게 인식되어 있는 실정인데, 전북가야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전북가야를 부각(제철, 봉수유적 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비'를 남원과 장수 경계지역인 봉수산 치재에 세우고 선포식을 통해 전북가야의 위상 알렸다.

향후, 도는 남원 유곡리와두리리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추진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경상가야 3개 유적(감해 대성동, 함안 말리산, 고령 지산동)을 4개유적(남원 유곡리와 두리리, 창녕 고동과 송현동, 고성 석화동, 함천 육전 고분군)으로 확대 경상가야와 공동추진하고 전북가야 교육홍보용 다큐 제작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 모집

### 내달 18일까지 전주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전주시는 시 공식 블로그 '한미당 전주 즐기기' (blog.jeonju.go.kr)를 통해 여행, 문화, 일상,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온라인 전주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할 '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1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총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인 시민 블로그 기자단은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21일 발표한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전주시의 각종 문화, 생활, 정책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주제로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게 되며 사진특강, 지역 탐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기자단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이며 지원서는 전주 시민 블로그 기자단에서 다운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전주 시민 블로그 '공지사항'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블로그 기자단 지원신청 및 접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시민 소통담당관(063-281-5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대출이자 싸게 해줄게' 보이스피싱 30대 전담책 구속

저리 대출로 전환해줄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전담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전주시 태평동의 한 은행에서 해외에 조직을 둔 보이스피싱에 속아 2500만원을 입금한 B(52)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이자 가 싼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뉴스시스



동물원 공사 재개방 기념 행사 26일 전주동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올미당 위원, 전주동물원 생태해설사, 관람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재개방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심야시간 차량절도 20대 구속

심야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130만원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다. /뉴스시스

# '검직 부당하다'... 전북 지방의원 14명 검직 사임 권고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실태 보고서 발표

전북지역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 14명(검직 17개)에게 검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검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236명 중 검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82명(검직 119개)이다. 이 중 각 의회가 부당한 검직이라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한 것이 17건이다.

의회별로는 전북도의회 2건, 김제시의회 7건, 고창군의회 4건, 남원시의회 3건, 정수군의회 1건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검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신고한 검직 신고 외에 누락된 검직이 84개(60명)로 보인다. 이 중 18개(16명)가 검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시스

# 슬로시티 정책 세계에 알렸다

### 시, 타이페이 국제여전 포럼 참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슬로시티 정책을 펼쳐온 전주시의 노력이 전 세계에 소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프랑스 미흥드 시에서 열린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 슬로시티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슬로시티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도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베이시 남강전담관에서 열린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인 '2018 타이베이국제여전(ITF)'에 참가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 콘텐츠로 활용한 전주 슬로시티 정책을 홍보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이 주최하고 대만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세계 60여개 국가 950여 단체가 참

여해 총 1450여개 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대만관광협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24일 남강전담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관광포럼에서 전문문화의 가치를 지켜온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해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 인증된 전주슬로시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슬로시티 정책과 슬로운동의 발전을 논의하는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슬로가치 확산을 위한 △오손도손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슬로라이프 △국제슬로시티 정책 수행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시와 협력해 전라도 공동 홍보관 운영을 지원하고, 대만관광협회와 박람회 찾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주 관광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복지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덕진구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동네복지 허브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이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선진지 견학대상인 제주시 연동은 4만3,21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3.5%가 수급대상자로 신라면세점 제주점등 10개소의 지역사회 기관과 민, 관협약을

맺어 장학금전달, 취약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견학에서는 중, 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등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센터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송효철 기자